

이재명 견제?...민주 '빅3' 복지 논쟁

이지사 기본소득 점진적 추진 강조 이낙연 신복지 정책 세일즈 분주 정세균 "기본소득 당론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때아닌 '복지 논쟁'을 펼치고 있다. 당내 기본소득 공방을 계기로 대권 경쟁에서도 복지 화두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31일 통화에서 "이재명 주자들의 복지 정책이 링 위에 올라와서 검증받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로 입증됐듯이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보편 복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다른 주자들의 협공이 강화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점진적 추진을 보다 강조하는 흐름이다. 당내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본선 무대에 대비해 중도층 공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지사가 최근 '공정성장'을 1호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며 '성장' 이슈에 무게를 실는 것이나, 파격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친기업 발언을 내놓는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자신의 신복지 정책을 세일즈하고 있다.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 기본소득과 차별화한 복지 공약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날 싱크탱크 토론회에선 신복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며 중산층 경제론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현실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낙연의 신복지가 훨씬 탄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 경쟁은 결국 재원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증세 같은 첨예한 이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공방은 이날도 되풀이됐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야권과 국내의 학자들 가운데도 기본소득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사람들은 이 지사 측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듣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른 주자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 공방에 대해 "소득 재분배, 자산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 대안이 백가지정도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신진 돌풍에 '40세 대선 출마제한' 논란... "장유유서 헌법"

대선 레이스를 앞둔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선 출마제한'을 뜻하는 헌법 규정을 고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현상'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 요구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2030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나이제한 폐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며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29)도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도 "40세 미만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7조 4항은 대선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련된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 "만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처음 못 박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4·7 재보선을 계기로 20·30 세대에서 분출하는 '공정' 문제 제기와 피선거권 이슈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울명지대 교수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기득권 타파로 연결된다"며 "우리나라에는 왜 30대 총리가 없나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준석 후보를 통해 다시 새롭게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죽마고우 권성동 만난 윤석열 대권 도전 목소리에 고개 끄덕

검찰총장 퇴임후 첫 정치인 만남 "의견 두루 듣고 신중하게 결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후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서 주말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의 검찰 후배지만,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갑내기 죽마고우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은 윤 전 총장의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 역시 윤 전 총장이 강릉에 있는 외가 친인척을 방문하고 외할머니 산소를 성묘한 이후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의 만남에는 윤 전 총장이 1990년대 중반 강릉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지역 인사들이 배석해 같이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 일행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버섯이 식사하다 주변 시민들의 요청에 사진을 여

러 장 찍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옆에서 정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1일 이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권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만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민주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26일까지였으나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국회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영덕,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산림비전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토론에는 임경원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미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

관, 정순경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 이대송 양산희망학교 교사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특수교육 돌봄부제를 지적하며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치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 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
-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